

락(Rock) 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정 미 진* · 정 흥 숙 · 김 선 화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origination and Changes of Street Style on the Development of Rock Music

Mi-Jin Jung* · Heungsook G. Chung · Sun-Hwa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2. 6. 27 투고)

ABSTRACT

Street Style, occurred in British and America, has been expressed the character of the new generation by repeating developments and changes. Nowadays, pop music reflects the phase of society, and simultaneously it has influence on from culture to society.

Rock Music was rooted in Country & western of America. Upon Country & Western, Afro-Americans Rhythm & Blues was added, and that was the birth of Rockabilly. Rockabilly developed to Rock'n'roll and it started to change to various forms of Rock since 1950s.

As the commercial impact and the breakthrough of teenagers emotion, the rock culture comprised the base of the youth culture. However, it formed the anti-establishment culture against the established value, accepting working class subculture. The teenager culture was affected by the Rock culture, also found relief in the opulence provided by the established generation, imitating it as it was. Simultaneously, it had a contrary aspect as anti-establishment form under the banner of revolt against languor in richness.

The youth culture created street style that was escaped from high fashion, every time Rock music had changes. Since Street style was based on resistance of established culture and it fully refused vogue, it was indifferent from high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every time Rock music had changes, the new youth culture was concomitant with, the youth culture created street style.

Secondly, rockabilly style was characterized as diamond shaped design, embroidery, extra wide shirt collar, vivid contrast color . Rockers style was represented as metal studs, beads, denim, leather jacket, boots. Fusion of hippies style and Psychedelic, long hair, beads, worn denim were elements of headbangers style. Punks style was characterized as ripped T-shirt, rooster hair, over decorated jacket, short skirt, net or plastic T-shirt.

Lastly, the firm relation between popular art and fashion was proved by examining the history of Rock Music and Street Style.

Key words : rock(락), street style(스트리트 스타일), rockabilly(락커빌리), rockers(락커스), headbangers(헤드뱅어스), punks(펑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락(rock)음악은 영미권에서 발생하여 시대에 따라 새롭게 변화, 재창조됨을 거듭하여 새로운 시대의 개성을 표현해 왔다. 현대의 대중 음악은 당시의 사회상을 투영하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친다.

락 음악은 미국에서 컨트리(Country & Western) 음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컨트리 음악에 흑인의 리듬 앤 블루스가 가미된 락커빌리(Rockabilly)가 락 큰 롤(Rock'n'roll)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1950년대의 락큰롤은 그 이후 다양한 명칭의 락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송원길, 1989).

상업적 효과와 틈에이저 감성의 돌파구로서 젊은이 문화의 저변을 이루었던 락은 노동자 계층의 하위 문화를 받아들여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반 문화를 이루었고 락 음악 문화에 영향을 받은 틈에이저 집단 문화 또한 기성세대가 제공한 풍요 속에서 안주하고 그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반문화적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락 음악이 새로이 변천될때마다 항상 새로운 청년 문화가 창출되어 왔으며 이 문화들은 또한 패션의 변화를 수반해 왔다.

이 락 음악들이 변화할때마다 창출된 새로운 청년 문화는 주류 문화에서 탈피한 하위 문화였으며

이 하위 문화는 일반적 주류 패션이 아닌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을 창출해 낸 것이다. 거리 문화를 형성하는 청년 하위 문화 집단들에서 비롯된 스트리트 스타일은 본래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였고 유행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하이 패션 세계와는 무관하였다(정경희, 1996).

이러한 스트리트 스타일은 서구 매스 미디어의 하위 문화 요소에 관한 상품화 과정을 통해 하위 집단의 영역을 넘어 대중 문화화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히 하위 문화 영역에만 머물러 당시에만 잠시 유행하고 소멸되는 패션의 차원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리트 스타일의 유행 파급효과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트리트 스타일의 주된 발생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락 음악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라 스트리트 스타일은 어떻게 변천하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또한 미래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락 음악의 시초인 락커빌리로 부터, 락커스(rockers), 헤비 메탈(Heavy Metal), 펑크(Punk)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적 변천과정을 통해 수반된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젊은이들의 저변 문화인 대중음악과 패션의 밀접한 관계를 재인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락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난 시점은 1950년대의 락커빌리란 음악 장르가 대두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락은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용어상의 탄생은 1950년대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어적 락의 탄생이 아닌 음악 내용적인 락의 뿌리를 찾자면 컨트리 앤 웨스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장미선,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락 음악의 시초를 용어적 등장 시기인 1950년대로 보고 당시 수반된 스트리트 스타일인 락커빌리 스타일부터 변천의 시작으로 기준을 삼았다. 그리하여 1950 중반부터 1960년대 유행했던 락커스 스타일, 1970년대의 헤드 뱅어(headbanger) 스타일, 1970년대 말의 펑크 스타일에 이르기까지의 음악적 발전에 따른 스타일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1970년대는 사실상 락의 세분화 된 가지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로 펑크 스타일 외에도 그램(Glam) 락,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 등이 연계되어 등장했으나 락의 기본 정신인 저항 정신 추구보다는 대중 매체를 통한 시각적이고 상업적인 면에 비중을 많이 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 시켰다.

연구 방법은 문헌적 고찰을 사용했고 비계량적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산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스트리트 스타일과 락 음악 관련 논문, 서적을 통해 문헌 조사를 하고 시각적 자료는 서적, 패션 잡지에 나타난 관련 사진을 수집했고 대중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사진에 있어 비디오 테이프, LPD, 인터넷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락의 출현 배경과 변천과정

1.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

1950년대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여러면에

서 안정적인 시기였다(F. 프라이델, A. 부린클린, 1986).

이 시기의 미국인들은 융성하고 번영했으며, 국가적 이미지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전쟁에 연루되었던 것은 성공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즉,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을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움을 이끌어 온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

또한 베이베붐과 더욱 팽배해진 주인의식이 함께 했던 번영의 시기로서 많은 미국인들은 경제적 자급능력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산층의 미국인들은 번영을 느끼고 있었으나 점차 사치와 물질주의 만연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장미선, 1994).

이 시기에 새롭게 부상하며 불만을 터뜨린 부류는 바로 틴에이지들과 흑인, 그리고 하층민이었다. 경제적 부흥을 누리던 1950년대에 이르러 흑인들은 그들의 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1950년대의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으며 그들은 부모세대들이 만들어낸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세력을 확장시켰다(이지현, 1998).

로큰롤의 전파를 뮤지션 개인들의 음악적 혁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년하위 문화라는 새로운 현상의 대두이다.

문화 연구가 웰시(Welsh)는 1950년대 미국의 10대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대공황과 전쟁시기에 번성한 공식적 대중 문화를 거부하였다고 했다. 낭만적인 공식 문화는 새로운 욕망과 가치를 찾던 10대들에게는 따분할 뿐이었다. 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한 전후의 물질적 풍요로 인해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청년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갖고 싶어한 것이다(이경수, 1997).

이러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출신의 빌 헤일리(Bill Haley)는 컨트리 가수로서 경력을 추구하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게 되자 리듬 앤 블루스적인 요소를 가미한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를 락커빌리의 시초로 볼 수 있다(신현준, 1987). 락커빌

리는 곧 락큰롤이란 용어로 진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프로듀서 샘 필립스(Sam Phillips)의 공이 크다. 마이너 레이블인 선 레코드를 통해 락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신현준, 1987).

이때, 락큰롤을 대중 음악으로 대중화 시킨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앨런 프리드(Alan Freed)이다. 1950년대 초반만 해도 리듬 앤 블루스(Rhythm & Blues) 혹은 흑인 대중 음악으로서 도시 블루스와 댄스 비트를 덧붙인 음악의 백인적인 변용인 락큰롤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드는 그의 쇼에서 필연적으로 리듬 앤 블루스 디스크를 틀어야만 했다. 그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고 (파퐁러 음악용어 대사전) 이는 로큰롤이 처음에는 리듬 앤 블루스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라는 증거가 된다. 차이가 있다면 리듬 앤 블루스가 흑인을 위한 흑인 음악이라 본다면 락큰롤은 백인을 위한 흑인 음악이라는 점이다(Brown C. T., 1986).

그렇지만 락큰롤은 점차 백인 청년의 정서와 어울리는 내용을 담아 나가게 되었고 결국 청년과 락큰롤은 거의 동의어처럼 되었다. 이들 락커들은 낮에는 학교, 밤에는 가정이란 현대 사회의 조직원리에서 해방되어 밤거리를 배회하게 되었고 댄스 홀에서 음악에 맞추어 집단적으로 어울리게 되었다.

락큰롤에 등장하는 가사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거리, 댄스 호텔, 고속도로, 주크 박스, 파티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안주할 곳 없는 그들이 잠시 머무는 행로를 말해준다. 즉, 락큰롤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젊은 대중이 만들어 낸 것이다.

2. 락의 변천과정

1) 락커빌리(Rockabilly)

락큰롤(Rock'n'roll)이란 용어전에 쓰인 음악 용어는 락커빌리인데 문자 그대로 Rock과 hibility 남부 농장의 가난한 백인을 일컫는 속어의 합성어이다. 이 음악은 리듬 앤 블루스에 컨트리 비트를 가미하여 강한 비트의 락으로 탄생된 것이다(임진모,

1995).

컨트리 음악은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주류 대중 음악에 식상해 있던 청중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컨트리도 점차 빨라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리듬 앤 블루스와 의 교류도 빈번해지게 되었다(신현준, 1999). 그 결과 탄생된 것이 1950년대의 락커빌리인데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y)가 인기를 얻는 시기부터 락큰롤이라는 스타일로 용어가 정리된 것이다(서동진, 1993). 락커빌리는 195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락커빌리 음악의 특징은 기존의 컨트리 앤 웨스턴(Country & Western)음악이 악기면에서 밴조, 만돌린, 하모니카, 기타가 주를 이룬데 반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은 전기 기타, 리듬 기타, 베이스로 구성되면서 사운드 면에서도 거칠어 졌다.(Polhemus, T., 1994). 창법은 성문 폐쇄음(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 딸국질 등을 사용했고 이 같은 창법은 긴장감과 강약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흑인 창법에서 유래한 것이다(송원길, 1989).

50년대 초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은 락커빌리가 락큰롤로 꽃을 피우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격정적인 무대매너로 히프를 흔들거나 머리, 손, 팔을 움직였다.

2) 락(Rock)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되는 문화혁명이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락 음악이 그 중심이 되었다(Brown, C., 1986).

락 음악은 락커빌리(Rockabilly)에서 락큰롤(Rock'n'roll)로 표기되다가 락(Rock)으로 줄여진 전위 음악이다. 락큰롤은 5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발생되었으나 영국에서 락으로 용어가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용어가 확산된 것은 1960년대 초이다(송원길, 1989). 그러나 락이라는 용어가 하나로 정착한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가지 하위 락 음악 장르들의 갈래가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락 음악의 특징은 기존의 컨트리 앤 웨스턴에

리듬 앤 블루스를 가미한 것으로 영국 출신 4인조 그룹 비틀즈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락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표현이나 가사 내용이 기존의 락큰롤 시대보다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지게 되었다.

3) 헤비메탈(Heavy Metal)

헤비메탈의 기원은 보통 하드 락(Hard Rock) 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이다. 물론 이 하드락은 락의 한 장르이고 락은 락커빌리와 연류되어 있으므로 그 기원을 컨트리에 둔다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1970년대의 락 음악계를 논할 때 주로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락과 헤비 메탈의 분열을 지적한다. 온건한 프로그레시브 락이 주로 중간 계급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헤비 메탈은 폭주와 비행을 일삼는 노동자층의 전유물이었다(임진모, 1995).

이 메탈은 고음의 사운드 창법에 큰 드럼, 거친 금속성 사운드가 특징이고 사이키델릭 락(Psychedelic rock)과 부루스 락(blues rock)의 혼합으로 고전적인 메탈 장르이다.

초기 헤비메탈의 대표적 뮤지션은 레드 제플린(Led Zeppline), 딥 퍼플(Deep Purple)등이 있다.

헤비 메탈은 또한 그 악기나 창법 스타일에 따라 블랙 메탈(Black Metal), 글램 메탈(Glam Metal), 트래시 메탈(Trash Metal), 그리고 데스 메탈(Death Metal)로 나뉘는데 블랙 메탈에는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글램 메탈에는 머틀리 크루우(Motley Crue), 트래시 메탈에는 메탈리카(Metallica), 그리고 데스 메탈에는 슬라이어(Slayer)가 대표적 음악인이다(Polhemus, 1994).

4) 펑크(Punk)

펑크라 하면 풋내기라는 속어로 락의 변화된 한 장르이다. 펑크가 일관된 흐름으로 형성된 곳은 뉴욕이었고 여기에 60년대 중반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실험적 밴드가 활동했다. 이들은 뉴욕 펑크의 모태가 되었으며 뒤이어 72년경 뉴욕 달스(New York Dolls)라는 그룹은 글램 락과 펑크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였다. 펑크의 태동이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 폭발적 인기 확산 지역이 영국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

시하지 않는다(신현준, 1987).

펑크의 특성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파괴적 행위, 원시 문화인 아프리카를 동경하는 보헤미아니즘과 반 성취주위를 추구했으며 이들은 반 지식주의자이며 예술파괴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회 계층의 인종차별, 기성세대와 미래에 대한 좌절로 허무주의를 추종하였고 무질서, 부정부주의로 도파했다(김희남, 1996).

펑크의 윤리는 정상적인 것들에서 이탈하여 비 정상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성취를 맛보는 것이다. 그 예로 면도칼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고 연주했던 시드 비셔스(Sid Vicious), 살아 있는 닭의 머리를 물어뜯었던 이기 팝(Iggy Pop)등의 행동을 들 수 있다(정경희, 1996).

펑크는 그룹 Sex Pistols에 의해 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음악은 매우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변화해온 락음악의 특성을 연대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그림 1> Elvis Presley



<그림 2> Beatles



<그림 3> Deep Purple



<그림 4> Sex Pistols

<표 1> 연대별 락의 변화

연대	락의 명칭	대표적 뮤지션	음악의 특성	생성 및 용어 기원
1950	rockabilly	Elvis Presley<그림1>	성문 폐쇄음, 격렬한 몸동작	리듬 앤 블루스에 컨트리 비트 가미
1950중반~1960	rock	Beatles, Rolling stones <그림2>	거칠은 사운드, 기존의 락큰롤보다 세련된 표현의 가사	락큰롤로 표기되다가 락으로 용어가 줄어듦
1960후반~1970	headbangers	Led Zeppline, Deep Purple<그림3>	사우트 창법, 강한 드럼, 금속성 사운드	사이키델릭 락과 브루스 락의 혼합
1970 후반	punks	Sex Pistols<그림4>	실험적이고 초현실적인 사운드, 평음같은 기타 사운드, 현실 비판적, 허무주의적 가사	풋내기라는 속어로 락의 변화된 한 장르

III. 스트리트 스타일

1.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 배경

스트리트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미국에서부터라 할 수 있는데 (Polhemus, T.,1994) 2차대전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속에서 고용의 기회를 얻게된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경제권을 갖게 되었고 교육의 기회 증대와 연장은 청소년들의 자아를 짝치게 하여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생기게 하였으며 성인들의 권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게 했다(김창남, 1995).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대중 사회의 변모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중상층과 성인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치관을 지닌 틴 에이지들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른바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부터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대항하려는 반문화 운동이 급진화되기 시작했다. 풍요로운 물질문화로 상징되는 1960년대의 연장으로 1970년대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서 절약이 미덕인 시대로 변화하면서 대량 생산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음악의 상업적 성장이 거듭되어 런던에서의 글램 락과 미국의 디스코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개성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가 기존의 관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그들만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창조하

였다(이지현, 1998).

현대 사회의 도시화와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경쟁 내지는 무관심 등의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고 더욱 심화되어가는 소외감과 불안감, 좌절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은 기성문화에 대한 갈등과 투쟁의 반항적 형태로서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강혜선, 1995).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파생된 새로운 문화는 기성 세대들에 의해 청소년 문화 (Youth Culture)로 불리워지게 되면서 기존의 문화와는 상이하게 구분되는 그들만의 옷차림, 머리형, 말투, 문화적 취향을 갖게 되었다(김희남, 1996). 이와 같이 기성 세대와는 구별되는, 기존 스타일에 저항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언어가 스트리트 스타일이다.

2. 스트리트 스타일의 종류

거리 문화(street culture)가 수반하여 생성된 스트리트 스타일은 1940년대 미국의 소외된 계층이었던 흑인 젊은이들에 의해 생겨난 주티 스타일(Zooty style)로 시작되어 검은 가죽 재킷의 착용으로 대표되는 바이커 스타일(Biker style), 5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트(beats)와 테디 보이스(Teddy Boys), 락커빌리(Rockerbillies)로 점차 더욱 다양해 지기 시작했다. 락음악과 함께 폭발적인 젊음지

향 문화로 상징되는 60년대에는 모즈(Mods), 로커스(Rockers)스타일과 반전, 평화를 슬로건으로 한 히피(Hippy) 스타일에 이르러서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Polhemus, T., 1994). 이후 70년대의 글램(Glams)과 헤드 뱅어스(Headbangers), 허무주의적, 파괴지향적인 펑크(Punk) 패션을 출현시켰다. 이렇듯 독특한 스트리트 패션은 80년대에도 레게(Raggae), 캐주얼(Casuals)등으로 이어졌고 90년대에는 사이버 펑크(Cyber Punks), 힙합(Hiphop)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창출하여 현재까지 패션의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시대별 스트리트 스타일의 종류의 명칭을 스트리트 스타일의 태동시기인 1940년대부터 연구의 범위내인 1970년대까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스트리트 스타일의 년대별 스타일

	스타일
1940년대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그림5> जू티스Zooties 캐리비안 베이(Caribbean Style) 바이커(Biker) 힙스터스(Hipsters)
1950년대	비트(Beats) 테디 보이스(Teddy Boys) 서퍼스(Surfers)포커스(Fokers)락커빌리(Rockabilly)<그림6>
1960년대	모즈(Mods) 사이키델릭(Psychedelic) 로커스(Rockers)<그림7>루드 보이스(Rude Boys) 히피 (Hippies)
1970년대	글램(Glams)헤드뱅어스(Headbaners) <그림8> 라스파타리안(Rastafarians) 스케이터스(Skaters) 펑크(Punks)

본 소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스트리트 스타일 종류 중에서 음악적으로 락 음악과 연계된 스타일들, 즉 락커빌리, 라커스, 헤드뱅어스, 펑크 스타일만을 다루고 있다.

IV. 락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변천

1. Rockabilly Style(950년대)

락커빌리는 흑인의 리듬 앤 블루스와 남부 백인

의 재즈와 가스펠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의상 스타일에는 단순히 흑인 재즈 뮤지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남부의 댄디(Dandy)로 화려하게 재 창조하였다. 사람들은 엘비스를 히빌리 캣(Hibilly Cat)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흑인 전통재즈의 힙캣(hip cats)과 남부 백인의 전통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히빌리의 결합, 즉 락커빌리가 흑인과 백인의 문화의 역동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정경희,1996).

엘비스 프레슬리가 활동하던 멤피스(Memphis)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락커빌리 스타일은 젊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시사하는데 가난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빈곤과 육체적 노동에 찌들음을 드러내지 않을 옷차림을 추구하고 싶어했고 또한 그 옷차림으로 사회적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락커빌리 스타일 의상은 백색과 파스텔 색조로 된 옷감에 다이아몬드와 자수 등으로 장식, 눈에 띄는 스티치, 부분적인 색상의 첨가, 화려한 옷술기, 화려한 색채와 극명한 색 대비, 재킷의 옷깃에 둘러있는 상당히 폭이 넓은 셔츠 칼라 등과 같은 과장된 모습이 나타났다<그림9>. 바지는 윗부분은 헐렁한 반면에 발목에 이르러서는 좁아지는 형태로 페그(pegged) 스타일<그림10>로 불리워지기도 하였고 신발은 눈처럼 새하얗거나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톤의 색조를 이루었고 푸른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넓은 어깨의 트워드 주트 슈트(tweed joot suit), 광택있는 샤크 스킨(shark skin) 자켓도 크게 유행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라스베가스 공연에서 광택 있는 실트 슈트나 샤크 스킨 재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그림11>.

이렇게 잘 차려 입는 스타일(Dressin up)이 있는 반면 이와는 반대로 멋대로 입는 경우(Dressing Down)도 있었는데 이는 낡아빠진 데님 작업복 자켓에 청바지와 부츠가 그 대표적 차림이다<그림12>. 1957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와 같은 차림으로 영화에 출연하였는데 그의 번지르르한 흰색 구두와 광택이 없는 흰색 구두의 대조는 특이하였다.

2. Rockers Style(1950중반 ~1960년대)

195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안타패션(anti-fashion)이 점점 확산되었으며 그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었다.

락커스들은 저돌적인 태도와 반항적인 아웃사이더로서 그들의 위치를 공표하였다. 락커스들은 장식을 강조하여 상징성을 그렸고 또한 메탈징을 박았고 특유한 문장은 더욱더 명백한 집단 독자성을 창조하였다(정경희, 1996).

Mike Brake 에 의하면 락커는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바이커(bikers)와 난 라이더(non-riders)이다. 바이커(bikers)들은 장식용 못이 박힌 검은 가죽 의상을 입고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거나 트랜스포트 카페(transport cafe)주위를 배회하기도 한다. 이들은 방랑자적 로맨티즘과 폭력, 서로에의 충성, 반 가정, 반 권위적, 남성의 자유로운 유랑자의 꿈을 표방하여 오직 현재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이지 라이더로 표현되었다(Polhemus, 1994).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인 non-rider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애정은 바이커보다 적었고 단지 의상을 장식 못이 박힌 옷으로 입어 공격적인 노동자 계층의 남성미로 표현되었다.

이들 락커스들은 헤어진 청바지를 입고 소매를 잘라 내거나 소매 아래가 헤진 데님 가죽 재킷을 입었다<그림13>. 그리고 가죽이나 데님은 빈틈없이 사슬이나 장식 단추, 색칠한 기장이나 뱃지(badge)로 장식했다. 장식으로는 59클럽(club) 뱃지를 포함하여 파시즘 연합과 분리될 수 없는 철십자 훈장이 있다.

락커스의 가죽재킷은 실용적이고 질긴 의복으로 사용된 반면, 노동자 계층의 의상으로 반발의 상징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그림14>. 또한 유사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나오는 집단의 동질성을 보여주었다<그림15>. 그 예로서는 가죽 재킷 등판에 그려진 해골그림은 고속을 즐기는 오토바이족에게 가장 공통적인 표시였고, 다른 그림이나 징으로 박힌 장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표시하

는 것이다.

3. Headbanger Style(1960년대 후반~1970년대)

1960년대 후반, 젊은이 문화는 점차 노동자나 하층민 주도에서 중산층, 대학 교육을 받은 부류로 이동해가고 있었다.

1968년 팝 그룹인 스테판 울프(steppenwolf)가 히트 시킨 Born To Be Wild에서 heavy metal thunder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진보적이면서 로큰롤의 본질에 더욱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것은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새로운 모습을 제안하였다(최광복 역, 1983). 즉, 당시는 히피(hippie) 문화가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고 이 히피는 중산층 백인 중심의 문화인 반면 락 음악 문화는 보다 노동자 층이 중심이 된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된 새로운 락의 장르인 헤비메탈은 음악적으로나 의상적으로나 예기치 않은 락 문화와 히피 문화의 결합이 되어버린 것이다(Polhemus, 1994).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옷차림을 표방하는 이들을 헤드뱅어스라 부르는데 이 용어는 스테이지에서 머리를 위아래, 혹은 좌우로 흔드는 제스처를 일컫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들의 긴 머리와 헤드뱅, 기타를 정신없이 연주하는 젊은이, 마이크를 자유롭게 흔드는 행동 등은 젊은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의상의 특징은 히피스타일(초라하고 남아보이는 데님)과 사이키델릭(Psychedelic)(반짝거리는 비즈장식)그리고 락커 스타일(번쩍이는 가죽 재킷, 장식을 댄 가죽)의 혼합된 스타일이다<그림16>. 또한 머리 스타일은 히피의 영향으로 긴 머리이다. 이 긴 머리는 일명 푸들(poodle) 머리라 불리워졌다 <그림17>. 또한 징 박은 가죽 자켓<그림18>, 스팅크스 진(spandex jeans), 금속 장식과 뱃지(badge)도 빼 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뱃지의 표피와 표범가죽 문양의 액세서리는 1990년대 이후에 패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그림19>.

4. Punk Style(1970년대 후반)

펑크는 70년대 말 영국의 경제 불황을 타고 실업의 증가와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반발, 젊은 세대의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인 음악과 팝 스타를 모방하려는 심리, 그리고 소극적이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타내려는 움직임의 영향 등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후 영국 문화 속에서의 반 모우드 중 가장 과격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김희남, 1996).

펑크란 원래 비성숙한 풋내기 젊은이, 소극적인 동성애, 저속하거나 값어치 없으며 정신과 건강에서 허약함을 뜻한다 (Johny Stuart, 1992).

독특한 펑크 스타일은 1976년 런던 락 밴드 섹스 피스톨스의 무대의상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의로 추하게 조작하여 기존의 미의식을 부정하며 기성 세대에 대한 안티 패션을 형성했다.

그들의 의복형태는 과다하게 장식된 검은 가죽 재킷(Jacket)과 멜빵바지,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의 팬츠, 초미니 스커트,<그림20> 플라스틱과 그물로 된 셔츠, 모조 표범 가죽, 당돌한 구호가 들어간 티셔츠가 무질서하게 코디네이트 되었다 (Mcdowell, C., 1985)<그림21>.

장식이 많은 것이 그들의상의 특징인데 지퍼가 많이 달리고 메탈링, 다양한 뱃지, 작은 펜던트, 가죽 끈, 체인 등을 무질서하게 달고 다녔으며 옷핀을 귀, 코, 입에 꿰어 장식하기도 했다<그림22>. 또한 조화되기 힘든 아이템들이 의상에 장식으로 부착되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 면도칼, 텔레비전 콤포

넌트, 안전핀 등이 그것이다.

헤어 스타일은 펑크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수탉의 벼슬 모양인 모히카 족의 헤어 컷과 독특한 머리 염색 방식의 아방가르드한 패션 분위기로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었다<그림23>. 입술을 검게 칠하고 다니고 눈 주위를 검은 라인으로 굵게 그리거나 점을 찍는 등 과격적인 화장법도 펑크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다. 또한 장신구도 매우 독특했는데 메탈로 만든 굵은 팔찌, 가죽 장갑, 징박헌 벨트, 독일군 장화, 해변용 샌들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락과 연계된 스트리트 스타일을 시대별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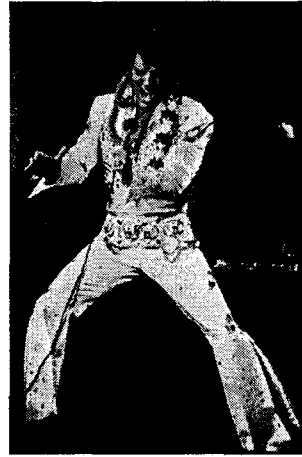
<그림 5> 웨스턴 스타일

<표 3> 시대별 락과 관련된 스타일 특징

스타일	년대	대표적그룹및 뮤지션	연계된락음악	패션특징
Rockabilly	1950	Elvis Presly	Rockabilly- 성문폐쇄음, 격렬한몸동작	극명한색대비, 넓은셔츠칼라, 인조다이아나지수장식
Rockers	1950중반~1960	Beatles	Rock- 강한비트, 거칠은사운드, 기존의락큰롤보다세련된표현의가사	검은가죽재킷, 징, 해골그림, 낡은데님, 뱃지
Headbangers	1960후반~1970	Led Zepline	Heavy Metal- 금속성의강한사운드, 사우트찰법, 강한드럼	히피스타일의에스닉룩, 긴머리, 낡은데님, 앰비멀스킨, 반짝이는비즈장식
Punks	1970 후반	Sex Pistols	Punk rock-실험적이고초현실적인사운드, 평음같은기타사운드 현실비판적허무주의적가사	과도한지퍼나징장식, 초미니스커트, 당돌한한글귀의티셔츠, 망사나플라스틱티셔츠, 수탉벼슬머리



<그림 6> 라커빌리 스타일



<그림 9> 엘비스 프레슬리,
라커빌리



<그림 7> 락커스 스타일



<그림 10> 페그드 탐 팬츠, 라커빌리



<그림 8> 해드뱅어 스타일



<그림 11> Elvis Presly



<그림 12> Rockerbillies



<그림 15> 59club



<그림 13> Rockers



<그림 16> Headbangers



<그림 14> Rockers ,



<그림 17> Headbangers



JUDAS PRIEST

INTERNATIONAL
PHOTOGRAPHY
PHOTOGRAPHY

<그림 18> Headban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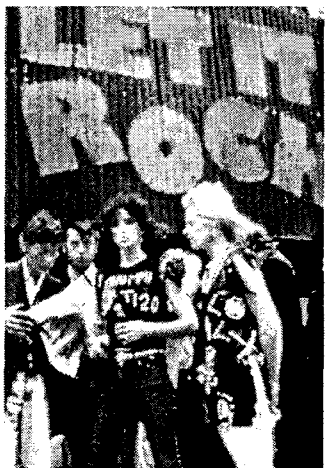
<그림 21> Punks



<그림 19> Headbangers



<그림 22> punks



<그림 20> Punks의 초미니 스커트



<그림 23> Punks

IV. 결 론

이상으로 스트리트 스타일을 락 음악의 변화, 발전을 통하여 어떠한 스타일로 변천해 왔는지, 어떠한 의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젊은이들 사이에 파생된 새로운 문화는 기성 세대들에 의해 청소년 문화 (Youth Culture)로 불리워지게 되면서 기존의 문화와는 상이하게 구분되는 그들만의 옷차림, 머리형, 말투, 문화적 취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기존 스타일에 저항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언어가 스트리트 스타일이다.

락 음악은 1950년대의 락커빌리로 시작하여 락커빌리 스타일을 생성시켰으며 1960년대의 락으로 변하여 락커스 스타일을 수반하였다. 이 락 음악은 또 다른 락 장르인 1970년대의 헤비메탈을 낳았고 이는 헤드뱅어 스타일과 연계되었다. Punk는 1970년대 후반 실험적이고 과격한 락의 한 장르로 생성되어 펑크 스타일을 수반하게 되었다.

본 소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락 음악은 그 생성이래 새로운 형태로 변화, 발전해왔으며 이 때마다 청년 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스트리트 스타일을 수반해 왔다.

둘째, 락커빌리 스타일의 의상 특징은 극명한 색 대비, 폭이 넓은 칼라, 인조 다이아몬드나 자수로 장식된 흰색이나 옅은색 의상이고 락커스 스타일의 특징은 헤진 데님 팬츠, 징과 사슬 장식의 검은 가죽 자켓, 뱃지, 부츠이며 헤드뱅어 스타일의 특징은 히피 스타일의 에스닉 룩, 낡은 데님 팬츠, 애니몰 스킨 프린트, 긴머리, 비즈 장식이다. 마지막으로 펑크 스타일의 특징은 과도한 징과 지퍼, 뱃지 장식, 초미니 스커트, 사슬과 징 박은 가죽 자켓, 당돌한 구호나 망사의 티셔츠 등이다.

셋째, 한 시대의 대중 예술은 의상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스트리트 스타일을 영미권에서 발

생한 락 음악의 발전에 따라서 의상 스타일 특징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로는 우리나라 스트리트 스타일의 현황과 대중 예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 스트리트 스타일 연구가 영미권의 연구에만 치우치지 않고 보다 확장된 범위,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강혜선, "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pp.11-3
-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1987.
- 김수련, 염해정, 록계 패션 디자인 연구. 복식, 50(3), 2000.
-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 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p. 66.
- 김희남 "현대 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6, p.7
- 송원길, <컨트리 음악의 역사>, 서울:세광, 1989, p.18.
- 서동진, <Rock, 젊음의 반란>, 서울: 새길, 1993, p.53.
- 신현준, <락 음악의 아홉가지 갈래들>, 문화과 지성, 1987, p.144.
- 신혜영,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의 형성에 대한 연구, 복식, 27, 1996.
-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관한 연구: 19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26, 1996.
-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민선, 남성 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6), 1999.
- 이영재, 구인숙,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3), 1997.
- 이지현, "Street Fashion에 나타난 Hiphop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p.7
- 이경수, " street Fashion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7, p.8
- 이지현, " Street Fashion에 나타난 Hiphop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p.8
- 임진모, <락,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서울:창공사, 1995, p.16.
- 장미선,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3.
- 정경희,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과 유행현상", 대구효성카톨릭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6, p.11.
- 정현숙, 양숙희, 하위 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2, 1999.
 채수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현대 복식의 앤드러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 1999. 최광복 역, <여성해
 방과 성의 혁명>, 서울: 일월서각, 1983, p.162
 F. 프라이델, A. 부린클린, 박무성 역, <America in the
 Twentieth Century>, 서울 :대학문화사, p.442.
 파플러 음악용어 대사전

Brown , C. J., *Music U.S.A.*, Prentice Hall, 1986.
 Brake, M.,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80.
 Clarke, J., Hall, S., Jefferson, T. and Roberts, B.,
Subcultures and Class, London: Hutchinson & Co.,
 Ltd. 1976.
 Cawthorne, N., *Fifties Source Book*, New Jersey: Char-
 twell Books, 1990.
 Farid, C., *A History of Men's Fashion*, France: Flam-
 marion, 1993.
 Hebdige, D.,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Me-
 thuen & Co. Ltd, 1979.
 Haye, A.D. *Fashion Source Book*, New Jersey: Quarto,
 1988.
 Joohny Stuart, *Rockers!*, London, 1992, p.62
 Jones, M., *Getting it on*. New York: Sbbeville, 1987.
 Jefferson, T., *Cultural Responses of the Teds, in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 War Britain*, London: Hutchison Ltd., 1976.
 Kaiser, S.,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Macmillan, 1990.
 Lauer, Robert H.,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3.
 Modowell, C., *Dictionary of 29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85.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p.41.
 Takamura, Zeshu., *Root of Street Style*, Graphicsha
 Publish., 1997.
This Fabulous Century, New York: Time-life book, 1970.

그림 출처

<그림1> <http://launch.yahoo.com/artist/default.asp?artistID=1021515>
 <그림2> <http://launch.yahoo.com/artist/default.asp?artistID=1002217>
 <그림3> <http://launch.yahoo.com/artist/default.asp?artistID=1006961>
 <그림4> <http://launch.yahoo.com/artist/default.asp?artist>

ID=1019369
 <그림5>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6> 임진모, 락,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창공사,
 1996
 <그림7> 임진모, 락,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창공사,
 1996
 <그림8>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9> The 1960's, 1990
 <그림10>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11>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12> The 1960's, 1990
 <그림13> Rockers, *La Mode*, 1982
 <그림14>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15> Haye, A.D. *Fashion Fashion Source Book*,
 New, Jersey: Quarto, 1988
 <그림16> Haye, A.D. *Fashion Fashion Source Book*,
 New, Jersey: Quarto, 1988
 <그림17>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18> Jones, M., *Getting it on*. New York: Sbbeville,
 1987.
 <그림19>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20>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21> *This Fabulous Century*, New York: Time-life
 Book, 1970
 <그림22> Polhemus, T.,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on, 1994
 <그림23> *Fashion*, 1998